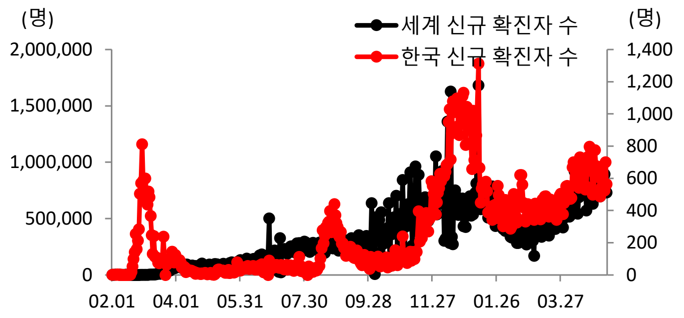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

SK증권 리서치센터 | 2021년 5월 10일 월요일

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간 증가 추이

세계 신규 확진자 732482명, 한국 신규 확진자 564 명



출처: WHO

코로나19 확진자/사망자/완치자

한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00명대 유지

2021-05-10 8:18 갱신

	세계	한국	중국	미국	인도	브라질	기타
확진자수	158,669,349	127,309	90,758	33,455,554	22,430,291	15,150,628	120,870,363
(전일대비)	732,482	564	12	35,757	369,331	63,268	11,675
사망자수	3,302,596	1,874	4,636	595,681	243,574	421,484	2,631,028
(전일대비)	11,675	9	-	255	3,914	2,091	5,661
완치자수	136,256,483	117,423	85,815	26,405,895	18,417,691	13,677,668	103,957,886
(전일대비)	-	542	-	43,646	352,596	37,190	
의심환자							

후베이*는 중국 통계에 포함됨.

출처: WHO, Wuhanvirus.kr / WHO 발표 기준. 언론 보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매크로 및 금융시장 Insight

해외

●12~15세 백신 승인 앞둔 美…'10대 접종이 코로나 방역에 열쇠'

-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속도가 둔화하는 가운데 10대에 백신을 맞히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

-파우치 소장을 비롯한 보건 전문가들은 인구의 70~85%가 코로나19에 백신으로, 또는 감염 뒤 회복해 면역을 갖는 지점을 집단면역의 문턱으로 보고 있음

●독일,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일시중단 美 제안 반대

-독일정부는 6일(현지시간)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일시중단과 관련, 일시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

-독일정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" 백신생산에의 최대 걸림돌은 특허가 아니라 생산능력의 확충과 품질확보가 중요하다"라고 언급

●EU,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↑…미국 따라잡을까

-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유럽연합(EU)이 역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

-EU 정상들은 오는 7월까지는 미국 수준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

국내

● 인도 코로나19 경증 교민 환자, 전세기로 이송 추진

- 인도 교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교민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자비 부담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

-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국내로 이송된 30여 명의 교민 환자는 지난 2월 전세기 편으로 가나에서 온 10명을 제외하면 모두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

● 금융연구원, "올해 한국 경제 4.1% 성장"

-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올해 4.1%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. 종전 전망치보다 1.2%포인트(p) 올려잡은 수치

- 연구원은 "예상보다 빠른 백신 개발·보급,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빠른 국제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,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완만하게 회복할 것"이라고 전망 배경을 설명

● 국민 41.2%, 코로나19 백신여권 있으면 유럽 가고싶어

-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여행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. 특히 해외 여행을 원하는 답변인 36.4%로 가장 많았음

- 백신여권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백신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

산업/기업 Insight

해외

● 글로벌 은행 "집단면역 없어도 경제 정상화 가능"

-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인구 60%는 이미 항체를 보유

- HSBC는 인구 대비 50%만 면역력 갖춰도 경제 장애 사라질 것으로 전망

- 집단 면역이 경제 정상화의 필수 조건은 아닐 것

● 인류의 신(新)대륙, 메타버스

- 기존에는 게임·엔터사들의 소통·놀이 창구로 이용됐던 메타버스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

-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활성화되며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는 중

● 미국 신차 부족 여파로 중고차 가격 고공행진

-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신차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체됐던 자동차 수요가 늘며 신차 재고가 동이 나 중고차 가격이 작년 대비 21%나 급등

-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포드(Ford)와 제너럴 모터스 등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장 폐쇄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

국내

● 슬금슬금 오른 금리, 신용대출 0.6%p·주담대 0.3%p 올라

- 은행 대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며 1000조원을 넘긴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증가

- 9일, 4대 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세 시현

-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금리가 상승세에 돌입

● 모더나 백신 허가 첫 자문 결과 오늘 발표

-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건당국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결과가 오늘(10일) 공개

-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점검위원회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

- 국내에서는 GC녹십자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와 유통을 담당

● 정제마진 손익분기점 넘은 정유사…코로나 털었다

-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·운용비 등 비용을 뺀 금액. 특히 휘발유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며 마진이 좋아지고 있음

-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정제마진은 배럴당 3.25달러로 집계됐음. 3월부터 계속 상승세.제품 중 가장 마진 회복세가 빠른 건 휘발유다. 휘발유의 정제마진은 지난달 9달러를 넘어섰다. 휘발유 재고량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음